불우청소년 奬學金 전달식

農協 포천시상록동인회 제15기 정기총회

포천시상록동인회(회장 이종윤)는 2월24일 오전 10시30분 용정회관에서 이한강 포천시상록동인회 명예회장, 황일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심재호 가산농협 조합장, 이수기 관인농협 조합장, 이상용 영북농협 조합장, 신영필 일동농협 조합장, 이우형 경기도의회의원과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초대회장으로 활동한 이한강 명예회장에 대해 감사패 증정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전달은 이종윤 회장이 전달했으며 관내 7개 농협에서 1명씩 추천받아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북농협의 경우는 2명에게 각 25만원씩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가산농협 김미나(퇴계원고) ▶관인농협 함동욱(관인고) ▶소흘농협 김선기(동남고) ▶영북농협 이재아(포천일고) ▶영북농협 김 건(포천일고) ▶영중농협 최승철(포천고) ▶일동농협 유희진(일동고) ▶포천농협 주재성(포천중) 등이다.

포천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 전현직 농협직원(4급이상)으로 구성된 포천시상록동인회는 농협동인상호간의 친목과 농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7월24일 창립돼 현재 1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포천시상록동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비롯해 ▶상록인의 날 행사 ▶퇴직회원 기념품 및 기념패 전달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포천시상록동인회 임원 명단이다.

▶명예회장 이한강(초대회장) ▶회장 이종윤(가산농협) ▶부회장 이종직(인천가좌지점) ▶부회장 김영조(영중농협) ▶감사 김용환(동두천시지부) ▶감사 우용성(포천농협) ▶사무총장 서동찬(가산농협) ▶대의원 최광수(경기지역본부) ▶대의원 김현식(포천시지부) ▶대의원 이용수(가산농협) ▶대의원 연제호(소흘농협) ▶대의원 박권빈(포천농협) ▶대의원 박종우(영중농협) ▶대의원 이동인(일동농협) ▶대의원 박철수(영북농협) ▶대의원 박춘성(관인농협)

포천시 상록동인회 이종윤 회장(왼쪽)이 이한강 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Essay

균형 잃은 지역발전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 고문

요즈음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전자기기 시대에 왜 기상예보는 맞지 않는지..... 애타게 기다리는 비 소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황사와 바람 때문에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금하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자고 나면 하늘은 맑고 투명해 집에만 있던 사람도 외출을 하고 싶어진다.

한내천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다 보면 바닥인지 물인지도 모르는 한내천에 오리과의 철새들이 수없이 앉아 있다. 먹이를 찾아 몸놀림을 하는 새는 매번 보아도 없다. 동그랗게 몸을 움츠린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너무도 보기 좋은 풍경이다. 폐수가 흐를 때와는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신도시가 형성되어 소흘읍은 인구나 도시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어 있다. 철원에 다녀오는 길에 관인면에 만나 볼 분이 있어 들렸다. 시가지 입구에 세워진 관인면민회관. 밖에서만 봐도 그 규모에 놀랍기만 한데 내부 시설이야 면민을 위해 다목적으로 잘 되어 있겠구나 생각하니 부러웠다. 내가 살고 있는 소흘읍에는 읍민회관도 체육관도 없다. 인구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많지만 주민 편의시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균형이 맞지 않는 지역발전이 아닌가 싶다. 한참 시내를 지나 눈에 띄는 도서관! 주황색 벽돌로 3층 건물쯤 높이에 막히는 곳이 없어 햇빛도 공기도 잘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관인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한다면 판·검사뿐이겠는가? 사(士)자가 붙은 유명인들이 배출될 성싶다.

정말 좋겠다.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한 참을 지켜봐도 문 열고 드나드는 학생은 보이질 않는다. 방학중인데 자리에 앉아 너무 열심히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옆을 지나는 중년의 여성에게 "관인면은 좋겠어요. 도서관도 면민회관도 저렇게 잘 지었으니"하고 말을 건네자 "체육관도 얼마나 잘 지었다구요." "체육관까지?" 눈이 동그레 반문하는 나에게 웃으며 답하는 말 "여기는 선거 때마다 몰표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거였나..... 순간 느껴지는 내 표정도 아랑곳없이 저만치 멀어져간 그 아줌마의 뒷모습만 보일 뿐 무슨 생각이 필요할까.....

소흘읍 인구를 분산해 관인면에 와서 살아야 할까? 생각다보니 의미 없는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10여 개월 앞두고 포천시민이 어느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면 포천에도 꿈의 도시가 모두가 염원하는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을까? 포천시의회에서 관인면 면민 편의시설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었을까?

서로의 의견이 분분해 성과 없는 표 결과로 균형에 맞지 않게 외면당해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몰표 내는데 공로자가 없으니까? 아니 열성인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들의 심리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지만 나도 한내천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자. 편한 선택이라 생각하니 도서관을 비치는 한낮의 태양이 더 찬란한 것 같다.

Essay

내 마음

용 경 자
주부 명예기자

따스한 봄날에 내 마음을 꺼내 호수에 던져 본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자존심이 보인다. 잘난 척 하느라 술 한 잔 먹고 큰소리치던 독선도 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맞는다고 우기면서 어색함을 무마시키려 소리 높이던 모습.

겉치레도 보이네,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있는 체하느라 돈으로 위장했던 일.

위선도 있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억울함의 상처로 남아 있는 흔적들, 하지만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전혀 남아있지 않네. 얌체스런 내 마음.

명절에는 두 마음이 엉켜 있네. 위로는 대접해 드려야하는 어른들과 아래로는 아들, 딸 , 조카들에게 세뱃돈, 맛있는 음식 챙겨야 하는 중노동의 날임이 현실이다.

이런 날엔 타당한 이유로 잠수를 타고 싶다. 하지만 나 어릴적 설날을 기다렸던 마음이 있었고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명절 준비를 했던 내 모습이었다.

이런 혼란스런 내 마음을 호수에 비친 파란 하늘가에 마구 흔들어본다. 시원하다.

호수가에 내 얼굴도 있네. 여자 나이 마흔이면 얼굴도 책임져야 할 나이라는데 영 마음에 안드는 모습이네.

황금돼지해에는 운동과 소식의 영양제를 나에게 선물해야겠다. 그리고 좀더 나를 사랑해야지. 10년 후 호수에 비칠 내 모습을 그려보며.....

포천병원 이지현 일반외과 과장 부임

약 2개월 동안 일반외과 전문의가 공석으로 있어 불편을 겪었던 포천병원에 신임 이지현 과장이 부임했다.

이 과장은 계명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중대 필동 병원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동서외과, 이대목동병원, 중대 용산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Essay

식탁의 작은 행복

강 옥 자
주부 명예기자단 이사

봄이 온 것 같다. 꽃가게를 경영하는 나는 세월이 다른 사람보다 3개월 정도는 빠른 느낌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꽃 소재들이 계절을 3개월 정도 앞서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는 1월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하며 산수유, 산당화 등 봄을 알리는 꽃꽃이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

지금은 졸업 시즌이라 튜울립과 후리지아 등 새로운 절화 소재들이 나를 반긴다. 하루 건너 새로 도착하는 절화는 그때그때 마다 새롭고 너무 예뻐서 늘 감사한다. 요즈음에는 장미도 개량종이 새로 나와서 색깔도 수십종이나 되며 절화 수명도 두배 정도 길어져 빨리 시들지 않아서 더욱 좋다.

우리들이 집안에 꽃을 몇 송이 꽂아 두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나는 손님들께 이야기 해준다. 그 정도 마음에 평화가 오고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 특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쇼핑을 조금만 지혜롭게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꽃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다.

2000~3000원 정도면 간단한 꽃 한 두 송이라도 살 수가 있다. 식탁에 장미 한 송이라도 꽂혀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고 상상 해보시면 그 행복이 바로 느껴지리라 여겨진다.

작은 돈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주부들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식탁에 몇 송이 꽃이라도 꽂아 행복을 누려 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다.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①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다'

포천시야구협회가 창립되어 포천에서도 야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포천YMCA리틀야구단의 창단과 함께 포천 야구의 비젼을 갖게 되었다. 본지는 포천야구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승호 포천시 야구협회장의 야구 이야기를 연재함으로써 포천시 야구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장 승 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바쁘게 하루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지만 건강과 스포츠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중 스포츠는 취미생활과 함께 사람과 건강을 이어주는 다리라 여겨집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서도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야구에 대하여 한 걸음씩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면과 시간을 만들어주신 포천신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야구의 선수는 9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9회까지 교대로 공격과 수비를 합니다.

-마운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박찬호 같이 공을 던지는 투수(위치번호 1)

-이 공을 받는 안방마님 역할의 포수(위치번호 2)

-큰형님 역할의 이승엽 같은 1루수(위치번호 3)

-날렵해야할 2루수(위치번호 4)

-긴 송구를 위한 강한 어깨를 가진 3루수(위치번호 5)

-센스있고 빠른 수비를 자랑하는 유격수(위치번호 6)

-좌측외야를 담당하는 좌익수(위치번호 7)

-수비의 범위가 넓고 경험이 필요한 이종범 같은 중견수(위치번호 8)

-우측외야를 담당하는 우익수(위치번호 9)

이렇게 9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작전과 싸인을 통하여 재미있게 즐기며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간혹 경기중계를 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플레이입니다. 라며 소리를 지를 때 위의 수비위치 번호 6의 유격수가 공을 잡아 4의 2루수에게 던져서 주자를 아웃시키고 3의1루수에게 던져 타자까지 아웃 시키는 멋진 플레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떻게 공을 던질까 고민하는 투수의 마음을 표현해 나타내듯 야구공의 실밥수 108개가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와 숫자가 같아 흥미 있는 얘깃거리로 연결시켜 이야기 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문의: 011-242-0869)

자유기고

아들의 졸업식

김 미 경
주부 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발뒤꿈치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한 마리 종달새처럼 노래하라. 차가운 공기를 깨고 낭랑히 들려오는 웃음소리의 여운과 함께 3년 동안 꿈꾸고 여물려 왔던 고운 꿈과 추억들이 이제 아쉬운 이별을 고한다. 새벽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삽상하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이 정겨움으로 목이 메인다. 얼마나 아름다웠던 속삭임이었나! 얼마나 즐거웠던 지난 날이었나! 그렇게 보낸 3년이기에 후회보다는 눈물이, 눈물보다는 새로운 희망이 마음 가득히 피어 오른다."

고교졸업앨범을 편집하며 내가 쓴 편집후기이다. 졸업 앨범 속의 이 글을 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감회에 빠져들곤 한다.

너무나 그리운 시절, 다시 돌아가고픈 시절, 후회가 많은 시절, 꿈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나는 내 아들의 졸업식장에 다시 서 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서며, "이곳은 엄마가 다닐 때 교무실이었고, 이곳은 엄마가 공부를 배우던 교실이었으며, 이곳은 엄마가 뛰놀던 운동장이다. 너는 엄마가 다니던 학교에 다니는 것이니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었다.

그런 아들이 이젠 나보다 키가 훌쩍 커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내 아들이 졸업식을 하여 학부모로 다시 서는 교정에서, 옛날의 감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군데군데 손때가 묻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학생회장이 눈물의 회고사를 하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는 것은 나 또한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졸업생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리라.

다시금 불러보는 교가 역시 그 시절 그 노래이고 가사 한 줄 틀리지 않고 같이 부를 수 있다는 즐거움과 긍지가 가슴에 차 오른다.

아직은 순진한 우리의 아이들, 고교에 입학하며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하지만 내 학교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그 순수한 마음만은 잊지 않고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10 이상(理想)

현실(現實)의 대칭어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우리는 흔히 이상적(理想的)이란 말을 한다. 이상적이란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실(現實)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현실의 대칭어로서 '이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으나 머리 속에서는 상상(想像)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의 세계'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할 때 '이상의 날개'를 펼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꿈같은 이야기'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란 뜻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인만 하겠는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려야만 하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꿈은 희망과 통하고 이상과 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고 '높은 이상과 희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다. 어릴 때 '큰 꿈'을 꾸어야 한다. 청년시절에 '높은 이상과 희망'을 품어야 한다. 꿈이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사회, 이상이 없는 사회는 별 볼일 없는 사회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꿈'을 꾸되 허황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 희망(希望)을 품되 허황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성공 가능한 꿈과 희망을 품어야 한다. '이상적인 세계'와 '성공 가능한 세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모를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집념(執念)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행'으로 그곳에 가 있어야 한다. '행'으로 그것을 이룩해내야 한다. '행'으로 그것을 성취할 때 이상향(理想鄕)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그릴라'라는 말이 있다. 히말라야 어딘가에 있는 이상향이란 뜻이다. 그곳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정말 그러한 곳이 있을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곳이다. '생각' 속에서나 가능한 곳이다.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곳이다.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그릴라'를 꿈꾸는 것은 희망을 위해서이다. 이상을 위해서이다. '인간은 희망과 이상이라는 꿈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경에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이 있다. 반야란 위대한 지혜(智慧)라는 뜻이고 바라밀이란 그 지혜를 이룩할 수 있는 '저편'이란 뜻이다. 저편이란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승의 짐을 벗어버리고 저편 언덕에 이르러 '위대한 지혜'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상향'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향은 '저편'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승'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승에서 위대한 지혜를 발휘하면 이미 이승이 '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저편의 바라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승을 바라밀로 바꾸려는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이승을 바라밀로 바꿀 때 인생은 더욱 값지고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져야 한다. '희망'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 나는 안 된다고 좌절(挫折)해서는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抛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可能性)을 지닌 존재이다. 영어로는 이를 포텐셜(potential)이라고도 하고 퍼씨빌리티(possibility)라고 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포텐셜과 퍼씨빌리티를 지니고 있다. 이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인식(認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면에 숨어있는 이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 내면에서 치솟는 이 '기운'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스스로 도와야 한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가능성과 힘을 찾아 '이상향'을 건설하자.

여행기

아름다운 삶은 만들어 가는 것

이 은 미
주부 명예기자단 이사

새벽4시 알람벨소리에 아이들과 함께 일어났다. 2월22일 목요일 아이들 봄방학을 맞아 은숙목장 가족과 우리가족 10명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안개로 도로가 보이지 않아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7시15분 제주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출발을 했다. 다행히 축석고개를 지나자 안개가 걷혔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 대기 좌석번호를 주며 방송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했다.

순간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아이들이 제주도로 가고 싶다며 기다리자고 해 지루하고 짜증나는 7시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제주도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 있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 아이들은 기다리길 잘 했다며 좋아했다.

오후 5시 점심 겸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지친 우린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 강풍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도에 도착했다. 강한 바람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현지 가이드는 이 정도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며 그래서 여자, 돌, 바람이 많은 제주도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사투리로 '혼저 옵서예'는 어서오세요, '감수강'은 가십니까, '힌 쌀'은 고운 쌀 또는 곤쌀 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에는 검은색 돌이 많아 쌀농사가 안된다고 알려 주었다.

신혼여행, 구훈목장 가족과의 여행, 큰 딸 연홍이와 여행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제주도 여행이다. 도로도 많이 넓어지고 관광여행상품으로 문화공연이 많았으며 중국, 일본 관광객도 여행을 많이 왔다.

셋째 날은 분재예술원에 갔다. 생각하는 정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은은한 천리향 꽃 향기, 500년 된 향나무의 아름다움이 가히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었다.

1500년 된 애기 능금이 이렇게 아름답기까지 수없이 시련과 고통을 참았을 것이라며 인생에서 삶의 아름다움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행을 통해 자연이 주는 순수함과 진실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주도 여행도 우리 가족의 행복한 삶의 일부를 장식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따뜻한 배려를 담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